“명절이 뭔가요?” 취업 걱정에 귀향 대신 도서관행

광주·전남 MZ세대에게 들어본 추석

하반기 공채시험 등 대비 ‘열공’
잡코리아 설문 31% “고향 안가”
고물가에 조카 용돈 엄두 안나고
명절 높은 시급에 단기 알바도
팍팍한 세태에 명절 가치관 바뀌어

추석연휴임에도 12일 오전 전남대 도서관은 임용고시와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일명 ‘백도’) 열람실은 학업 열기로 후끈했다.

열람실 전체가 꽉 차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대학생과 졸업생들이 명절 연휴에도 도서관을 찾아 좁디좁은 취업 문을 뚫으려는 듯 공부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 중에는 새내기 직장인도 있었다.

“11월에 예정된 (교사)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준비”, “승진과 취직 시험 준비” 등 목적은 다양했지만, 20~30대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도서관에 나왔다고 전했다.

전남대 사범대 화학교육과 4학년생 김유라(여·23)씨는 “올해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 군산 친가는 추석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주 외가에만 추석 당일 다녀왔으며 연휴 내내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다”며 “얼른 시험에 합격해 출근하고 싶다. 명절이면 남들처럼 부모님께 선물을 한아름 안겨드리고 조카들에게 용돈도 주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박성현(30)씨는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중이지만, 연휴에 전남대 도서관을 찾았다. 소방안전설비기사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서다. 박씨는 “자기계발, 자기만족, 승진과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명절 연휴지만 쉬지 않고 도서관을 찾았다”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명절 때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했다.

조선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노현진(30)씨는 이날도 학교 도서관을 향했다. 내년에는 7급 공무원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각오를 품고서다.

노씨는 “(우리 집이) 큰집이라 친척들이 모이는데 사촌 동생들이 취업해 할머니께 용돈 드리는 거 보고 집에 있기 우울해서 공부하러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1년이면 붙을 거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지치기도 한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되고 싶은데 명절이면 괜히 마음이 편치 않고 죄송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도서관 안팎에서 만난 지역 청년들은 이번 추석 명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다. 때맞춰 직장에 취업한 이들은 “억 소리 나는 집값 때문에 내 집 장만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고향 집 부모님은 자꾸 결혼 얘기를 하신다”며 하소연했다. 취업 문을 뚫지 못한 20~30대 청년 일부는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취업준비를 했다. 올해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귀향을 포기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족한 월급을 메우는 이도 있었다.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형영(38)씨는 “이번 추석에는 광양 고향 집에 내려가는 대신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다. 연휴 기간 아르바이트 비용을 평소보다 1.5~2배까지 쳐주기 때문이다”며 “월급 빼고는 물가가 다 올라 부업을 안 할 수가 없다. 내년에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터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부모님한테는 명절에 내려가지 못해 죄송하지만 ‘결혼은 안 하느냐’는 어른들 잔소리보다는 차라리 연휴에 부업하며 돈을 버는 게 마음 편하다”고 웃었다.

목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광주에서 사는 오병희(28)씨는 “추석 연휴가 삼성 하반기 공채 기간이라 광주 집에서 자기소개서 쓰기 등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라버린 물가와 높은 대출이자 등을 생각하면 이번에 꼭 원하는 직장에 합격해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했다.

한편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30대 전국 남녀 직장인 2141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1.7%가 ‘올 추석 부모님 댁 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고향 집 방문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 ‘넷플릭스 시청이나 게임’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글·사진 =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횡령 의혹 직접 수사

광주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전 집행부의 사업비 횡령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 광산구 송정 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사업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합 현 집행부가 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광주지검에 접수돼 사업장을 관할하는 광산서로 사건이 이첩된 바 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업무대행사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분양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모집 완료 때 당초 설계된 용역비 가운데 40%를 업무대행사에 집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뒤로는 조합원 모집 완료 때 용역비 80%를 집행한다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50억원 안팎의 용역비를 절차를 위반하고서 빼돌렸다는 의혹이다.

조합 현 집행부는 고소장에서 “최근 3개월간 현 집행부가 외부에 맡겨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이면 계약서를 통한 조합 자금 부적정 집행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주청은 ▲사업비 횡령 의혹 금액이 수십억 원대로 큰 점 ▲사건 관련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시 동구 금동 ‘THE50 센트럴 금동 지역주택조합’ 집행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금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조모씨와 조합 집행부를 도와 실무를 맡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유모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 수사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 대상 토지 확보율을 속이는 등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조합원 280여 명이 맡긴 자금 63억원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

전남경찰, 비위·사건 부실대응 직원 무더기 징계

전남경찰청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과 강력사건 부실 대응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 재직 시절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직원 29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최근 마무리됐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1인당 적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2000만원가량을 부정 수령했다. 전남청은 경찰관 14명과 근무시간 입력 담당 행정관 1명 등 15명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경찰관 14명은 경징계했다.

경찰은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이들을 사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에서 발생한 ‘화살총 습격 사건’ 당시 무기력하게 대응한 파출소 직원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여수 봉산파출소 일부 경찰관은 지난 6월 30일 괴한이 파출소에 침입해 화살총을 쏘자 몸을 숨기는 등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 파출소 근무 직원들이 체포하지 못한 괴한은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돼 검거했다. 전남청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감찰을 거쳐 팀장 포함 파출소 직원 3명을 경징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허위 채무 독촉장 이용 신종 금융사기 ‘주의’

남부경찰, 알바생 신고로 4곳 수거

경찰이 허위로 꾸민 채무 독촉장을 내세운 신종 금융사기 행각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예방했다.

1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오후 남부경찰서에 찾아왔다.

A씨는 경찰에서 “오늘 일당 10만 원을 받고 나주와 광주 남구·광산구 지역 주택 우편함 4곳에 채무 독촉장을 넣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을 마치고 나서 금융 사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금융기관에서 채무 독촉장을 아르바이트를 구해 인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배달한 독촉장이 금융사기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독촉장 배달 직후 A씨를 고용한 업체는 연락을 끊었고 일당을 보낸 계좌 역시 ‘대포 통장’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또 A씨가 독촉장을 전달한 주택의 명의자 또는 동거인 모두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라는 명의의 독촉장에는 채무자(수신인) 이름,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담당자 연락처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채무 독촉장에는 국내 신용정보업계(채권 추심)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업체명이 쓰여 있었으며,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다.

경찰은 우편함에 있던 독촉장 4장을 모두 회수하고 수신인에게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추석 모텔서 마약 투약 30대 구속

추석 당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함께 투약한 20대 여성은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서부경찰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A(36)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20대 여성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 월 수익 - 380만
▶ 연 수익 - 4,560만

▶ 매가 - 6억7천
▶ 융자 - 3억6천

중심사업,유흥가능,전용 100평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
(융자 7억)

신축원룸 (공실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

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 (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 (아파트) 첨단자이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광산구 안청동 (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전남	장성군 북하면 (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 (주택)▶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062-382-5500